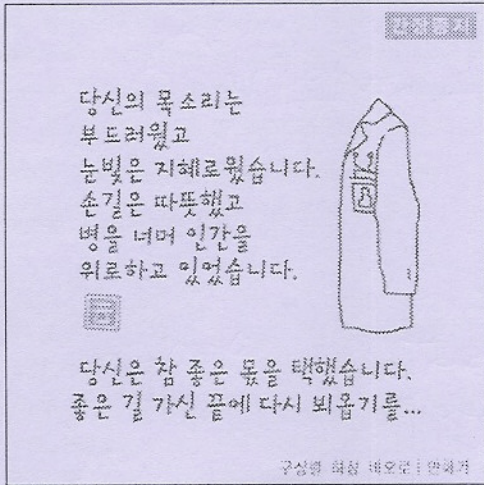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 1주일
제 29권 1호(나해) 2008.11.30

[묵상]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홍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욕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로마 13,8,11-14)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명옥 로즈마리, 이영록, 장연수 마리아, 이금용 베드로
	(생)신우용 안토니오, 홍마르코, 홍안나, 유희연 세레나, 박영원 루치아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김진수 미카엘,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고준희 제임스, 한병열 토마스, 이상현 베드로, 유연홍, 성기순 안나, 배일호 헨리, 금석주 모이세, 이성서 요셉, 이화문 마리아, 김중환, 현복임, 엄은섭 도로테오, 신현태, 김순성 마리아, 양노엘 신부
	(생)김수환 추기경, 이경용 야고보와 윤조 글라라, 이종민 요셉, 송호민, 김재민, 김앤디, 엄영숙 마리아, 최석원 클레멘스, 차인수 안드레아, 유우학레, 홍주희 안나, 김중렬 아가비도, 김명숙 루실라, 박상대 마르코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63,16ㄹ-17.19ㄷ;64,2ㄴ-7
화답송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소서. 〈전례성가 59, 대림 제1주일 나해〉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들어주소서. 케루빔 위에 좌정하시는 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권능을 펼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만군의 주 하느님 돌아오소서. 하늘로서 굽어보사 살피주소서. 비오니 포도밭을 찾아오소서,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심어주신 줄기를, 당신위해 실히 해주신 그 가지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쪽 사나이 위에는, 당신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는, 당신의 손이 있게 하소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오리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기리오리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3-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성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자애를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복 음	마르코(Mark) 13,33-37
영성체송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어 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30	124
봉헌	409	269,178
성체	376	106,299
파견	124	226

20.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

▶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일을 시작하시기 전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 군중들이 몰려드는 가운데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에도, 기쁨 때나 괴로울 때에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때에도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명 하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기도는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묻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기도의 모범인 ‘주님의 기도’(마태 6,9-13; 루카 11,1-4)를 가르쳐 주셨다. 주님의 기도는 일곱 가지 청원을 담고 있는데, 앞의 세 가지 청원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어지는 네 가지 청원은 우리의 바램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게 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낸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원함으로써 하느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게 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고 청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명으로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청원한다.

우리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현세적 양식과 생명의 빵인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신뢰심을 갖고 형제들과 함께 청원한다. 우리는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함으로써 하느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청한다. 주님께서서는 이 기도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여야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함으로써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청하고, 온갖 불신의 유혹을 물리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한다. 끝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함으로써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교회와 함께 청원한다. 기도가 끝날 때에는, 주님의 기도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인 “아멘.”으로 동의를 표한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어 우리 신앙의 진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 기도를 자주 바치기를 권함니다. (◆ CBCK 제공 - 계속)

기다림 - 절망 속 희망 찾기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오늘 제 1 독서에 나오는 이사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느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살육의 현장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처절합니다.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느님, 제발 하늘을 찢개고 내려오십시오!” (공동번역)

교회는 하느님을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느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사도신경에서 교회는 오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신약성경은 오시는 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묵시 22,20). 이 부르짖음은 C. 까레토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떠나신 이후에 하늘나라를 향해 바쳐진 뜨거운 모든 기도의 집약’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희망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희망은 종종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한다는 절절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하느님, 제발 하늘을 찢개고 내려오십시오!”

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가겠습니다!”

(묵시 22,20)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났다가 기어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 14,18).

제자들이 한밤중에 호수 한가운데서 있는 힘을 다하여 짐채만한 물결과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마르 6,50).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지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기쁨의 시기요 설렘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러나 언제나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 역사의 아픔 속에서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처절한 몸부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립니다. 오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 하느님, 하늘을 찢개고 내려오십시오(破天降下 파천강하)!”

◆박성철 미카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레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김정은 샘마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P.V. 4반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초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박소영 수산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금자 테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 일시 : 12월28일(주일) 낮미사 후 오후 1시부터
- 경연종목 : 지정곡(전례성가 142,144,146 중 택일), 자유곡, 성탄절꾸미기

오늘은 가톨릭 교회력으로 한 해의 전례 주기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기는 또한 회개의 시기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 없이는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주님께로 향하여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 시기의 영성입니다.

- ◆ 성 시간 : 12월4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서구역
- ◆ 성토 신심 미사 : 12월6일(토) 오전 8시30분
- ◆ 병자 영성체 : 12월11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백성사** : 오후 8시부터

남가주 한인성당 대림판공 시작으로 본당의 12월10일(수), 11일(목), 17일(수), 18일(목)의 저녁 미사가 아침미사(8시30분)로 변경됩니다.

고 양노엘 신부님과 골롬반 외방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장례미사를 도와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골롬반 외방선교회는 앞으로도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드림.

- 일시 : 12월5일(금) 오후7시, 강당
-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12월6일(토), 티오프 오전 9시50분

- 성탄절 꾸미기 (Express Expression) 6개구역별 주제
 - *토동 : 천사가 목동들에게 주님탄생을 알림
 - *토서 : 동방박사의 경배
 - *토남 : 성모님 잉태하심을 알림
 - *토북 : 성모님 엘리사벳을 방문하심
 - *PV : 성모님 예수님을 낳으심
 - *하버/카슨 : 이집트 피신
- 상금 : 1등 \$500, 2등 \$300, 3등 \$200, 참가상 \$100
- 찬조출연 : 주일학교, 배론청년회, 원서회

- 장소 : 레이크우드 골프코스
- 문의 : 서성용 베드로 골프회장 ☎ (310)686-3587

12월7일(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 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교우들께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레지오가 재창단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프레스디움(세움)이 셋(바다의 별, 순교자의 모후, 자비의 모후)으로 단원이 늘어나 12월부터 낮반이 새로 조직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회 : 12월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신청 : 오혜숙 루시아 ☎(310)490-3358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모으는 캔푸드(통조림)를 12월 한달 동안 계속 수집합니다. *수집장소: 성당입구 수거함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 11월30일(주일) : 소공동체 (김밥 \$4)
- 12월7일(주일) : 요셉회에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전신자들에게 건강식 해물차장밥을 대접합니다.

교무금	강덕희	강인모	고천용	김병학	김완태	김찬구
	문두현	민경근	박기돈	박수익	박영룡	송기철
	신순철	엄세종	오수인	육근주	이경태	이광우
	이귀분	이병우	이인석	이일형	이현주	조경림
	조소형	조준제	최경숙	최상만	최원석	최태훈
	하정화	홍주희	황지영	황철수	신영웨이	
합계 : \$3,520						
미사헌금 : \$3,006.80						

성전헌금	강인모	고천용	김병학	김찬구	민경근	박기돈
	박수익	박영룡	송기철	신순철	엄세종	오수인
	육근주	이경태	이광우	이귀분	이병우	이인석
	이일형	이현주	조경림	조소형	조준제	최상만
	최원석	하정화	홍주희	황지영		
합계 : \$1,910						

◆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두달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연극과 노래, Body Worship 등 성탄 축하 발표회를 마련했습니다. 리허설과 본행사에 자녀들을 꼭 참석시켜주시고, 학부모님들은 물론 전신자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성탄 예술제

- 리허설 : 12월13일(토) 오후 2시~4시
- 예술제 : 12월20일(토) 오후 2시30분~3시30분 연습
오후 3시30분~5시 본행사

◆ 겨울방학(주일학교/한국학교)

12월28일(주일), 1월4일(주일)은 겨울방학으로 수업이 없습니다.

◆ 성모신심 묵상집 소개

- 명상의 오솔길, 120페이지, \$10
- 저자 : 박인숙 테레사 (성 프란치스코 성당 꾸리아 단장)
- 구입 : 성물판매소, 오늘 주일(30일) 낮미사 후 친교장
- 자매님께서 100권을 백삼위 성당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소식

◆ 대림절 피정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 일 시 : 12월 4/5일(목/금) 오후 8시~6일(토) 오전10시
- 지 도 : 허성준 가브리엘 신부(베네딕도 수도회)
- 장 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참가비 : \$20 ☎(213)880-4663 한유스티나

◆ 작은 예수회 장애인 후원 '일일점심과 차'

- 일 시 : 12월6일(토)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 메뉴 : 갈비+추어탕, 1인당 \$10
- 장 소 :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 ☎(213)387-3301
(1137 Arapaho St. LA, CA 90006)

◆ LA 대교구 과달루페의 성모님 축제(행렬과 미사)

- 일시 : 12월7일(주일) 낮 12시, LA 다운타운 Cesar Chavez Av.와 710 Fwy 코너에서 행렬출발 ~ 이스트 LA 커뮤니티 칼리지(1301 Cesar Chavez Av. Monterey Park)에서 오후 1시30분 미사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주제 : '우리들의 희망, 성모님'

이번 주 단체 모임

11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테레사 328-0847	변혜경 율리아 920-5153 12/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12/27(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한길선헤 스톨라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42 12/19(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박정애 테레사 618-8499	박정애 테레사 618-8499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가디나 황제식당 719-8989 12/5(금) 오후 7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박영순 안나 750-0540 12/11(목) 오전 10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12/12(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6(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12/5(금) 오후 3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의혜 세실리아 541-0700 12/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찬 세바스찬 748-8436 12/12(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2/12(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 대림절 기도생활 ★

우리 가족은 본당과 가정의 성화, 쉬는 교우들,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대림절을 기도하며 지내기로 약속합니다.

☞ 기도하기 전에 대림환 촛불(or 다른 초)을 켜고, 온 가족이 침묵 중에 마음의 준비를 한다. - 가장이 기도를 시작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1. 대림절 시작성가

전례성가 123, 124, 127, 130, 132중 택일

2. 가정을 위한 기도 (○ 계, ● 응으로 기도한다.)

-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당신의 성삼에서 비롯되었나이다.
-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샘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당신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의 선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 나자렛 성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3. 찬미가

- 만민의 구세주여 내려오소서 동정께 나신아기 보여주소서
- 읊누리 이틀보고 놀라는도다 주께만 이런탄생 가능하도다.
- 자연을 뛰어넘어 나신아기는 크고도 신비로운 천상힘으로
- 하느님 말씀께서 육신되시어 대중에 맺을열매 꽃피웠도다.
- 성부와 꼭같은 영원한주님 인류를 구원하려 인간되시니
- 당신의 영원하신 그힘으로써 나약한 우리몸에 굳셈주소서.
- 주님을 모신대중 이제빛나고 한밤은 새론빛을 발하는도다
- 비오니 우리신앙 함께빛나서 어둠이 끼어들지 않게하소서
- 지존한 임금이신 독생성자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있으라
-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같이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있으라.
- ◎ 아멘.

4. 시편 63

- ◎ 오실 주님께 어서와 조배 드리세
-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 물기 없는 마르고 메마른 땅,
- 이 몸은 당신이 그림자이다.
- 당신의 힘, 영광을 우리러 보옵고자,

-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낮기에,
-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치올리리이다.
- 비게인 듯 기쁨인 듯 당신으로 내 흐뭇하고,
- 내 입술 흥겨웁게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 당신 날개 그늘 아래 나는 마냥 좋으니이다.
- 내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5. 성서봉독 ('매일미사' 해당일 복음을 찾아 봉독한다.)

6. 묵상

7. 묵주기도 (1단, 또는 5단을 전부 바친다.)

8. 청원기도 또는 자유기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는다.)

- 세상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 ◎ 주님, 어서 오시어 저희와 함께 머무르소서.
- ① 주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회개와 사랑의 생활로 구세주의 오심을 충실히 준비하게 하소서. ◎
- ② 주 그리스도님, 저희 본당과 가정이 날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
- ③ 주 그리스도님, 당신은 가난한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이 친구와 위로가 되시니, 저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관심과 기쁨을 베풀어주소서. ◎
- ④ 주 그리스도님, 쉬는 교우들에게는 믿음의 불꽃을, 예비신자들에게는 진리의 불꽃을, 저희 모두에게는 사랑의 불꽃을 태워주시어 모든 일에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
- (⑤ 필요한 기도를 추가할 수 있다. ◎)

9. 주님의 기도 (가족이 서로 손을 잡는다.)

- †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10. 맺음기도와 강복 (가장)

- † 하느님 아버지, 저희 온 가족은 주님의 오심을 이렇듯 기도와 회개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굶어보시어 금년 성탄절의 큰 축복이 이 땅에는 평화의 은총을, 저희 본당에는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그리고 저희 가정과 이웃 가정에는 화목과 구원의 큰 기쁨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 전능하신 하느님, (†) 저희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11. 마침성가 (전례성가 330, 323, 238장)